MONEYLOG BRIEFING

2026년 귀속 · 기준일 2026-10-24

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

나눔판 1/3

연말정산 구조와 카드 공제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보기 전 확인할 것,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머니로그 브리핑
goldmoneys.com

이 책 사용법

이 소책자에서 다루는 것

이 소책자는 『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 (2026 연말정산)』 전체판에서 아래 장만 따로 나눈 나눔판 1/3입니다.

- 시작: 이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1장 연말정산 5분 만에 이해하기
- 2장 미리보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3장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읽기 전에

- 전체판에서 나눈 소책자라 본문의 쪽 번호는 전체판 기준입니다(전체판 2~7쪽).
- 본문에서 다른 장을 가리키는 부분은 전체판이나 다른 나눔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눔판 2/3 「월세·주택·연금저축·IRP·놓치기 쉬운 공제」, 나눔판 3/3 「장려금과 경정청구, 체크리스트」.
-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입니다. 이후 바뀐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급여 담당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만든 곳: 머니로그 브리핑 (goldmoneys.com) · 전체판 파일: 13월의 월급 사수 가이드_2026 연말정산.pdf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START

이 가이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남은 두 달(11~12월)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그 두 달 동안 직장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 ] 내 연말정산이 환급인지 추징인지 결정되는 구조
- [ ] 11~12월에 꼭 해야 할 행동 3가지
-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기준
- [ ] 월세, 연금저축·IRP,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요건
- [ ]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내용(자녀 수별 카드 공제 한도, 고향사랑기부 공제율, 예체능 학원비 등)
- [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법, 놓친 공제를 최대 5년 치 돌려받는 경정청구

170만	148.5만	5년
월세 세액공제 최대	연금저축·IRP 최대 환급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활용법

2장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항목의 장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마지막 부록은 1월에 서류를 낼 때 옆에 두고 쓰는 한 장 요약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이며,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율입니다. 기준일 현재 기사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CHAPTER 1

연말정산 5분 만에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추징)입니다.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순서

총급여
연봉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공제 (급여에 따라 자동 적용)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

과세표준

▼ × 세율 6~45%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플러스면 환급, 마이너스면 추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절세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므로 연봉과 상관없이 효과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100만 원의 절세 효과
1,400만 원 이하	6%	약 6.6만 원
1,400만~5,000만 원	15%	약 16.5만 원
5,000만~8,800만 원	24%	약 26.4만 원
8,800만~1억 5,000만 원	35%	약 38.5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8~45%	약 41.8만~49.5만 원

연봉 4,000만~6,000만 원 직장인은 대부분 15% 구간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금 약 16.5만 원을 줄여 줍니다. (절세 효과는 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시기	할 일
2026년 11월 초중순 (예상)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확인.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며, 올해 날짜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의 마감일.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도 이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7년 1월 중순 (예상)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평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7년 1~2월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보통 2~3월 급여에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2027년 5월	빠뜨린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도 이때입니다.

CHAPTER 2

미리보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3가지는 연내에 확인해야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3장).

- [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
- [ ] 내 총급여 × 25% 금액 계산
- [ ]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②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여력이 있는가

연말에 가장 크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5장).

- [ ] 올해 납입액 확인 후 부족분을 12월 말 전에 납입(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③ 세대주·부양가족·주거 요건이 맞는가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 [ ] 월세 사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는지
- [ ] 부모님·배우자 연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 [ ]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미리 정했는지(중복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
- [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연봉 높은 쪽에 몰아 넣는 게 유리한지

CHAPTER 3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문턱 아래 금액은 어떤 수단으로 썼든 공제가 0원이라, 포인트·할인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사용처·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2026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1명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350만	400만
7,000만 원 초과	250만	275만	300만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문화비 제외)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신용카드 1,500만 원과 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

① 문턱 = 4,000만 × 25%	1,000만 원
② 문턱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움 → 신용카드 초과분	500만 원
③ 신용카드 500만 × 15%	75만 원
④ 체크카드 500만 × 30%	150만 원
⑤ 소득공제 합계 (기본한도 300만 이내)	225만 원
줄어드는 세금 (세율 15%, 지방세 포함)	**약 37만 원**

비교

같은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는 1,000만 × 15% = 150만 원으로 줄고, 절세액도 약 2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남은 두 달 사용 전략

-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로 전환하세요.
- 기본한도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처럼 추가한도가 따로 있는 사용처를 활용하세요.
-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차라리 카드 혜택을 최대한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 맞벌이라면 카드 사용을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서로 넘겨받을 수 없으니, 각자 쓸 때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세금·공과금, 해외 사용액, 상품권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MONEYLOG BRIEFING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머니로그 브리핑은 직장인과 사회초년생이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돈 정보를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금·숨은 환급금

청약·내집 마련·전세 안전 체크

연말정산·절세·연금

goldmoneys.com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이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